

가게앞 도로 자기것인양...상점들 '무한 이기'

일부 건물 앞 통제하고 손님 차량만 주차 허용

상무지구 주민들 민원 제기에도 구청은 뒷집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상가밀집지역 도로 양쪽 4차선 도로의 양쪽 2차선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누군가 도로 위에 라바콘 수십개를 줄줄이 놓아뒀기 때문이다.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이 올 때마다 라바콘은 주차 요원에 의해 치워졌고 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공공이 이용해야 할 도로가 사유화된 것이다.

광주 시내 일부 상점들이 차량이 통행해야 할 공공 도로의 일부 구간을 막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도로를 버젓이 사유화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지속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식당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이른바 '도로의 사유화'로 수 년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다. 음식점, 유흥주점, 카페 등 상가가 밀집한 상무지구 특성상, 상점들 홍보하는 철제 입간판 등 불법 시설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구청사 인근 도로에 선을 그어 만든

하기가 힘든 곳이다. 길이 100m 구간의 도로 양쪽 가장자리 차선에 라바콘 수십개가 주·야간 놓여 있는데다, 이를 치우고 잠시 차를 세워두고 하면 상가 소속 주차 요원이 막아서기 때문이다.

서구청은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4월 3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 통지를 했지만 업주 측이 '시정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실제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무지구 롯데마트 주변 유명 식당 앞 주차장 등 도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도로를 버젓이 사유화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지속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다.

광주 최고 유흥가로 음식점, 유흥주점, 카페 등 상가가 밀집한 상무지구 특성상, 상점들 홍보하는 철제 입간판 등 불법 시설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구청사 인근 도로에 선을 그어 만든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 한 상점이 둔 라바콘 수십개가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 상점 측이 도로를 고객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공영주차장과 도로 곳곳도 인근 상가 이용객이 아니면 주차장을 상가 측이 막아 선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구간에서 자신들의 상점이 눈에 띄게 하려고 주정차를 소극적으로 막는 것을 넘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홍보물 설치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

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정 상점의 경우 수년간 이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 구청 행정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들이나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실태 조사를 한 뒤 상용하는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병무청 내년 카투사 2천명 모집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할 카투사(주한미군 근무 한국군) 200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사이트'로 지원 접수를 할 예정이다. 카투사에 지원하려면 1988~1998년생으로, 지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치러진 어학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병무청은 지원자들을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병무민원포털사이트에 게재되며 선발자들은 내년 중 희망하는 달에 입영하게 된다.



사건의 순간 지난 24일 오후 4시4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연제지하차도 입구에서 이모(여·64)씨가 몰던 마티즈 승용차가 오른쪽 출구 분리를 돌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20여m를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 이씨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마속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자제공>

광주 동구, 시교육청 상대 지원초교 용지보상소송 패소

광주시 동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초등학교 폐교부지 계약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로 동구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동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초등학교 폐교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동구는 지난해 12월30일 지원초등학교 부지 매매계약금 3억1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7년 지원초 폐교 당시 시교육청이 부지를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교육청 땅에 학교를 짓는데 동구가 해당 부

지를 사들여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그곳에 학교를 짓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동구는 현재 월남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해당 부지(7419㎡)를 32억원에 구입하기로 시교육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폐교 용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예외 조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동구가 무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구 관계자는 "항소는 판결문을 토대로 실효성 여부를 따진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7 해질 19:41
 일출 23:47 일몰 11:59

폭염주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무더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5/34	보성	구름많음	24/34
목포	구름많음	25/33	순천	구름많음	25/35
여수	구름많음	25/31	영광	구름많음	24/33
나주	구름많음	24/34	진도	구름많음	24/33
완도	구름많음	24/31	전주	구름많음	25/32
구례	구름많음	24/35	군산	구름많음	25/31
강진	구름많음	24/33	남원	구름많음	25/32
해남	구름많음	24/33	홍산도	구름많음	23/29
장성	구름많음	23/33			

◇바다 날씨

목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남	0.5	남동~남	0.5
남부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안남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남동~남	1.0~1.5	남동~남	1.0~1.5
서부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돌매

목적	일출	일몰
	06:38	11:48
여수	19:08	00:00
	01:06	07:21
	13:41	19:34

◇주간 날씨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8/1(월)	2(화)
☁	☁	☁	☁	☁	☁	☁
25/33	25/32	25/33	25/33	25/32	24/32	24/32

◇생활지수

- 식중독
- 자외선
- 미세먼지

'광주판 대도'...출소 두달만에 또 잡힌 절도범

50대 남, 대형 아파트 돌며 일주일새 1억원 금품 털어

47차례 8억6천만원 절도 전력

40~50평형 고급 아파트만 돌며 일주일 새 7차례의 절도 행각만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광안경찰청은 광주 수완지구를 비롯한 강동,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아파트를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김모(50)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 현관을 대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열어젖힌 뒤 침입, 현금 500만원과 귀금속 등 1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9일까지 전국을 무대로 7차례의 절도를 벌여 1억5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5월 28일 3년6개월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김씨가 단 일주일 전국을 무대로 7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손에 넣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잡힌 김씨는 47차례에 걸친 아파트 절도 행각으로 8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전력이 있는 등 여느 잡범과 달리 적은 범행 횟수만으로 큰 금액을 손에 쥐었다"면서 "김씨가 이왕 훔치는 거 돈 많아 보이는 부자들만 털러는 나름의 범행 원칙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

국고지원 받은 어선 엔진 빼돌려

1억대 불법 사용 어민 6명 적발

노후어선에 장착할 것처럼 속여 국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엔진을 새 어선에 불법 장착한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5일 노후 기관(엔진) 대체 사업을 악용해 취득한 엔진을 신규 건조 어선에 무단으로 변경·장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벌

률위반)로 김모(54)씨 등 어업인 6명을 적발했다.

김씨 등은 노후어선 엔진 교체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디젤엔진을 구입했으나 노후어선이 아닌 새로 건조한 어선에 이 엔진을 설치, 1억2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타용도로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사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